김한빈

김진명  
: 통계학 전공 답게 통계 관련 지식에 해박하며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취업과 프로젝트 기간이 겹쳐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무리 없이 맡은 바를 해내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이차가 있는 조원들의 의견을 잘 수용하여 조장으로서 좋은 팀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했습니다. 본인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김채은  
: 첫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 걱정이 많은 조원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본인의 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본 경험이 부족해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 과정 중 제가 봐온 김채은은 상당히 뛰어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의견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경험 밖의 지식을 흡수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전문 지식 관련하여 서류 상 스펙만 갖추어 진다면 어디서든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인재입니다.

이경원  
: 전형적으로 알아서 잘하는 타입입니다.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끈기가 대단하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도 다양한 시각의 해결책을 강구합니다. 여러 차례 과제 수행 경험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체화하고 있는 듯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고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주변에 좋은 분위기를 전파하여 협업에 최적화된 인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 여태까지 해온 것처럼 한다면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다연  
: 프로젝트 과정에서 가장 큰 성장을 이룬 조원입니다. 과정 초반에는 간단한 파이썬 코딩도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수월하게 다루고 서버 연결에도 기여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성장 모습은 저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었습니다. 다른 역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경험이 쌓이면 차차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모로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상엽

: 기술적으로 완성된 인재입니다. 전공인 컴퓨터 공학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고 실행 능력과 습득 능력 또한 탁월합니다. 다른 조에 비해 비전공자가 많아 커뮤니케이션에 답답한 부분이 꽤나 많았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고 인내심 있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량은 의심할 바가 없으므로 약간의 운만 따라준다면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